

MERITZ 메리츠화재

고객만족경영대상 5년 연속 대상 수상



메리츠화재는 11월 2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11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고객만족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연구하는 주요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들이 ‘최고 경영진 및 임직원 고객만족활동 참여 정도, 고객중심의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한 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업에게만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추위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따뜻하기만 하세요



메리츠화재는 12월 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저소득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송진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1명이 참여해 1,2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지난 10월 29일 월계동을 시작으로 상계동, 개포 구룡마을 등 총 5곳에 연탄 8,400장을 직접 배달하는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메리츠화재의 연탄배달 나눔활동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매년 겨울마다 연탄배달을 비롯하여 김장담그기, 독거노인 이불 전달, 저소득 가정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두번받는 암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은 첫 번째 발생한 암은 물론 두 번째 발생한 암까지 각각 최고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무배당 두번받는 암보험’을 개발·판매하였다.

이 상품은 첫 번째 암의 진단이 확정되고 1년이 경과된 이후 전이암을 포함한 2차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최고 5,000만원의 2차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한 1차암 진단 확정 시 차회 이후 2차암 진단비의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줌으로써 보험대상자는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최고 100세까지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암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을 구성하는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최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 또한 이 상품의 장점이다.

‘IT 이노베이션 대상’ 그린IT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화손해보험이 12월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1 IT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그린IT 확산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그린IT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중장기 그린IT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IT인프라 환경 △업무처리 방식 △기업 활동의 그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녹색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 상품은 1년 간 전년 대비 차량운행 감축 거리에 따라 최고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저탄소 자동차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 박석희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고객과 회사,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화재안전훈련 시행



롯데손해보험은 11월 10일 본사 사옥 옥외주차장에서 본사 임직원과 입주사 직원, 그리고 중부소방서 직원 등 총 163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재안전훈련

을 통한 화재대응요령 습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화재안전훈련은 화재 상황을 가정한 비상탈출구 확보 및 비상대피훈련과 인명구조방법, 소화기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화재안전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롯데손해보험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건물 주변 환경정리를 통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며, 건물 내 기계설비 점검 및 부서별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무실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하우머치 신도림 콜센터 개소



롯데손해보험은 10월 10일 김진익 경영지원본부장, 임병희 법인영업본부장 외 임직원과 영업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우머치 신도림 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하우머치 신도림 콜센터는 하우머치 자동차보험 매출 달성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김효정 센터장 및 64명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효정 센터장은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하우머치 신도림 센터의 첫 센터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우머치 신도림 센터를 하우머치 센터뿐 아니라 모든 다이렉트 센터 내에서 1등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린손해보험

천개의 바람(千風) 상조보험 출시



그린손해보험은 10월 4일, 현물 지급형 상조보험 '천개의 바람(千風) 상조보험'을 출시했다.

천개의 바람(이하 '천풍') 상조보험은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상품내용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조보험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초로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종신까지 현물상조(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질병사망에 대해 80세까지만 보장하는 기존 손보사 상조보험과는 달리 '천풍 상조보험'은 가입 후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했다. 만기인 80세 이전 사망 시에는 보험금을 통해 상조현물을 지급하며, 만기 이후 사망 시에는 만기환급금을 활용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새마음회 뷰티강좌와 진행



그린손해보험 새마음회는 10월 19일, 뷰티르사(MBC아카데미뷰티스쿨)와 손잡고 가을맞이 뷰티강좌를 진행했다. '새마음회'는 본점 여직원들을 주축으로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강좌들을 진행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친목 동호회다. 이번 강좌는 MBC아카데미뷰티스쿨의 메이크업 전문가를 초빙해 「Office Trend Make-up」을 주제로 사계절에 관계없이 출근 메이크업으로 손색없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얼굴의 장점을 살리는 기법을 공유했다. 이 날 모델로는 10월 입사한 박소정, 김민지 신입사원이 직접 나서 큰 호응을 받았다.

사원회사



흥국화재 해머링맨, 저개발국의 신생아 돕기 위해 털모자 썼다



흥국화재 '해머링맨 (Hammering Man)' 이 국제 아동권리기관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 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한다. 매년 말 산타클로스 모자를 써오던 해머링맨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저개발 국가의 신생아를 돕기 위해 털모자를 착용한 것이다.

높이 22m, 무게 50t의 해머링맨이 착용한 털모자는 둘레 약 7미터, 높이 약 3미터의 대형 사이즈이다. 2012년 1월 31일까지 털모자를 착용하게 되는 해머링맨은 세이브더칠드런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캠페인을 홍보하게 된다. 흥국화재는 사내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자뜨기 이벤트를 12월 개최하고, 만들어진 모자는 내년 1월말쯤 세이브더칠드런 측에 전달 할 예정이다.

2차 암 진단 보장에 대한 초기보험료 부담이 없는 '두번 주는 암보험' 판매



흥국화재는 첫 번째 발생한 암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도 추가 보장해주는 '두번 주는 암보험'을 출시해 판매중이다. '두번 주는 암보험'은 2차 암 보장에 대한 초기보험료 부담이 없다는 것

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객은 1차 암 진단시부터 2차 암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므로 가입최초부터 2차 암 보장에 대한 보험료까지 납입해야 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단, 최초 가입시에 2차 암 보장 가입을 예약해야하고 만약 2차 암에 대한 보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

또한 1차 암 진단시 암담보 외의 모든 담보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되므로 1차 암 진단시점부터 100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가입한 담보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최고 「A++」 신용등급 획득



삼성화재는 세계최대 보험회사 전문신용평가 기관인 미국 에이엠베스트(A.M.Best)사로부터 평가체계상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을 부여받았다.

A.M.Best사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평가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 성장성, 효율성,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5개 항목의 정량적 평가와 ERM(전사리스크 관리)전략, 해외사업 추진 현황,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 전략 및 자본정책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대규모의 자기자본력과 지난 5년간 업계 대비 3~4%대의 낮은 자동차보험손해율 유지, '2020 Global Top 10'의 중장기 해외사업전략 본격화, 안정적인 영업성과와 견실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인정받아 최상위 등급인 「A++」를 획득했다.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출시



삼성화재는 2003년 출시 후 176만명이 가입한 최초의 통합보험 「삼성 Super보험」에 이어 신개념의 통합보험인 「내게 꼭 맞는 수퍼플러스」를 새로 개발해 판매 중에 있다.

이 상품은 ▲사망·건강을 집중 보장하는 건강보장 라이프+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도 안심할 수 있는 장애보장 케어+ ▲다양한 생활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생활보장리빙+3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 필요에 따라 각각 개별 가입 및 여러 종목 조합 가입도 가능하다.

H 현대해상

2011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수상



현대해상은 11월 10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GWP Korea가 주관하여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일한 조사도구와 방법으로 측정해 선정하는 상으로, 현대해상은 지난 8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조사에 참여해 임직원 대상 설문 조사와 기업문화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4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2년부터 조사에 참여한 이래 아홉 차례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현대해상은 전사적 칭찬문화와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제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현대해상은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11월 18일에 진행했다.

연탄은행과 함께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현대해상 서태창 대표이사를 포함해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40명이 하이라이프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했으며, 서울 서초구 우면동 접시꽃마을 판자촌을 방문해 골목길을 오가며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현대해상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에너지 나누기를 실천하는 봉사단체인 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했으며, 그 중 3천 장을 15가구에 가구 당 200장씩 배달했다.

LIG 손해보험

'3인 3색 토크 콘서트' 개최



LIG손해보험은 이 시대 대표 멘토 3인을 초청해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무료 콘서트 'LIG손

해보험 3인 3색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서울 역삼동 소재 LIG손해보험 본사 사옥 지하에 위치한 소극장 LIG아트홀에서 3차수에 걸쳐 진행되는 이 콘서트는 부단한 노력과 도전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이른 명사 3인을 통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첫 번째 콘서트가 열린 10월 14일에는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이자 국내 벤처사업가 1세대인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꿈'을 주제로, 두 번째 콘서트가 열린 10월 21일에는 최근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연기자 김갑수 씨가 '희망'을 주제, 마지막 3차 콘서트가 열린 11월 11일에는 한국영화의 액션키드 류승완 감독이 연사로 나섰다. 이 날 공연들은 다음TV팟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VOD도 올리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2011년 연말 키워드는 나눔활동



LIG손해보험은 연말을 맞아 전사적인 나눔 캠페인 '희망봉사한마당'을 진행했다. 12월 5일 LIG손해보험 구자준 회장은 전체 임직원과 영업가족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희망봉사한마당'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포했다.

'희망봉사한마당'은 LIG손해보험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나눔 캠페인으로, 임직원 및 영업가족 2만여 명이 참여하여 2005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118개 봉사팀으로 구성된 'LIG희망봉사단'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LIG손해보험의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희망의 집짓기'를 통해 3채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탄생한다. 특히 이달 말에는 기념비적인 '희망의 집 20호'가 완공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또 1년간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모은 'LIG희망나눔기금'을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전달식도 가질 예정이다.

동부화재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3년 연속 보험업종 1등



동부화재가 세계 최대 금융정보기관인 다우존스에서 발표한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Korea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경제, 사회, 환경 등 기업의 총체적인 경영활동을 평가하여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최종 편입한 투자지수다.

이번 발표에서 다우존스사는 국내 52개 기업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최종 DJSI Korea에 편입하였고, 이 가운데 동부화재를 포함해 29개사를 업종별 1위 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수 협력업체 파트너십 컨퍼런스 개최



동부화재는 11월 14일 전에 위치한 리베라 호텔에서 김정남 사장과 임직원, 이기무 보상서비스실장 및 전국 121개 우수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정비업체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2011 우수협력업체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협력정비업체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통해 최대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최고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부화재는 1996년 4월 업계 최초로 전국 40여 개의 우수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차량 입고 지원 및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차별화된 상생협력을 시작했으며 2004년 5월 현장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현장출동에 대한 업무를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력업체에 일임했다.

현재 전국 600여 개의 협력업체에서 우수한 정비 기술력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사와 차별화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KFPA, 『2011 세종나눔 봉사대상』에서 수상



KFPA는 11월 30일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1 세종나눔 봉사대상』에서 영예의 ‘특별대상 세종상’ 과 ‘대한적십자사 총재상’ 을 수상하였다.

‘세종나눔 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특히 나눔과 기부봉사에 공이 지대한 사람들을 찾아 격려하고 이를 널리 알려 기부와 나눔봉사 문화를 우리사회에 더욱 확산시키자는 뜻에서 제정된 상이다.

KFPA는 2009년에 이어 2011년까지 전국에 산재된 재활원, 양로원, 고아원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우리의 재능을 활용한 화재안전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전국에 산재한 245개소에 대한 봉사활동을 마친 바 있으며, 2년 주기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득양극화 현상과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쪽방촌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서울, 대전 쪽방촌 화재안전 봉사활동 실시



KFPA는 지난 6월 영등포 지역 쪽방촌에 이어 10월 22일(토)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쪽방촌 530가구와 대전 중구 정동 일대 쪽방촌 30가구에 대한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7개 조를 구성하여 지역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쪽방촌을 일일이 돌며 난방 또는 취사용 화기시설과 전기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었다.

해당 쪽방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우려되는 화재안전 사각지대이나 화재안전 관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KFPA 화재안전봉사단은 화재발생 원인 제거에 집중하였으며, 만약 화재가 나더라도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화기 사용법과 집집마다 거주자 능력에 맞는 대처요령을 알려주었다.

『제11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개최



KFPA는 10월 21일(금)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학생 대표 및 지도교사, 소방방재청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KFPA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국내 9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한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불조심에 관한 조기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습관화하여,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차 평가시험을 거쳐 선발된 전국 17개 시·도 최우수 학급 학생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1부는 퀴즈 한마당(OX퀴즈 및 골든벨퀴즈), 2부는 시상식 및 안전 체험으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화재안전문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불조심 어린이상 9개교, 우수상 5개교, 최우수상 2개교, 대상 1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김해영은 초등학교 5학년 2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회를 실시하여 2,718학교, 3,135학급, 103,529명의 어린이가 참가, 180개 학교가 수상하였으며, 11회째를 맞은 2011년에는 전국 363개 학교, 528개 학급, 15,219명이 참가하였다.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및 제안 현상공모』 시상식 개최



KFPA는 11월 25일(금) 오전 11시 KFPA 본사 건물(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및 제안 현상공모』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한

화재관련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안전의식 고취로 화재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12회 화재안전 체험수기 및 제안 현상공모』는 지난 10월에 시상식을 개최한 『제11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참가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50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작품은 내용의 공감성 및 창의성, 실천성, 표현력, 글의 구성도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총 3차에 걸쳐 엄정하게 평가하였으며, 15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관계자 초청 방재기술교육 실시



KFPA는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된 수도권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에서 방재기술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건물 관계자에게 화재안전기술 보급 및 KFPA의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수건물 관계자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FPA는 화재 개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수계소화설비의 구조 및 유지관리, 화재 재현실험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후 방재시험연구원의 연구시설 견학과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KFPA, 인사 발령

승진

- ◇ 차장
 - ▲ 광주호남지부 부지부장 : 이주상(李周相)
 - ▲ 화재조사센터장 : 김기옥(金基玉)
- ◇ 과장
 - ▲ 특수보험팀 : 전국중(田國重)
 - ▲ 인천지부 : 김대겸(金汰謙)
 - ▲ 건재환경팀 : 김정욱(金政煜)

이동

- ▲ 감사실장 : 이유식(李有植)
- ▲ 방재컨설팅팀장 : 이기완(李基琓)
- ▲ 특수진단팀장 : 백운용(白雲龍)
- ▲ 업무지원팀장 : 최상중(崔相鍾)
- ▲ 방내화팀장 : 최동호(崔桐浩)
- ▲ 중앙지부장 : 황건만(黃健晩)
- ▲ 경기강원지부장 : 박수택(朴壽澤)
- ▲ 부산경남지부장 : 최상두(崔相斗)
- ▲ 대구경북지부장 : 김원철(金元鐵)
- ▲ 인천지부장 : 백광현(白光鉉)